

학교 교육과정에서 행복개념의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기술·가정교과에서 행복역량강화를 중심으로 -

박명희*¹⁾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Happiness in the School Curriculum - Focusing to enhance Capabilities of Happiness o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

Park, Myung Hee*¹⁾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When income reach a certain level and their basic needs are met, happiness index do not reach even though income increase. This phenomenon was described as a paradox of Esterlin. In Korea, per capita income is over \$ 20,000, but life quality is not high enough and according to United Nation's happiness report, Korea's happiness index is 5.8 out of 10 which ranked 56th out of 150 countries.

At this poi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Can capabilities of feeling happiness be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

second: Is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he most robust course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feeling happiness?

In this stud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theoretical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as in progress.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apabilities of feeling happiness can be enhanced through training. As a nation and the economy with level of per capita GNP over \$20,000, in order to realize a desirable human character, capabilities of feeling happiness can be trained and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

1) 교신저자: Park, Myunghee, Pildong 3ka 26,Jung -Gu,Seoul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414, Fax: 02-2265-3414, E-mail: parkmh@dongguk.edu

2) 본 연구는 2012년 1월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시 본인의 기초강연의 원고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3)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서울)의 연구지원을 일부 받아 작성되었음.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feeling happiness through life experience. Since Home Economics Curriculum educates to enhance their life practice, it is the most robust course in feeling happiness training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Key words: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capabilities of feeling happiness,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quality of life, happiness and education

I.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경제수준의 발전 속도만큼 생활만족이 향상되지는 않았고 이에 수반하여 오히려 우울증, 자살,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증상들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복지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탐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소득보다는 사회적 관계라던가, 일에 대한 만족도 등 내면적 욕구의 충족이 개인의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Diener & Seligman, 2004).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다보면 일과 돈벌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친구, 가족, 건강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위한 시간에 소홀해지며 결국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줄어든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를 확보한 경우 그 이상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진다해도 행복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 되고 있다(Easterlin, 1974).

한편,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육의 이념은 교육기본법에 명기되어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택하고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추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이념, 그리고 세계적 차원으로는 인류공영

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주적 생활능력을 위한 도구적 교육이 우선시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직업생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실에 있어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교육이념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교육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쟁만을 추구하는 한국의 교육목적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행복의 의미를 파악하고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학습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학자들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행복이 교육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되어야 하므로 이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행복증진에 필요한 교육의 조건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교의 현재 교육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Lee, 2009).

한편 심리학자인 Noddings(2003; 2007)는 행복을 실제 삶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개인생활에서는 1) 가정 만들기 2)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 3) 자녀양육 4) 인격과 영성의 성장 그리고 5) 대인관계의 발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6) 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7) 공동체와 사회에 참여와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기술·가정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목적을 행복역량강화를 위한 교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통적 가정교과의 목표변화와의 비교를 통해 행복역량 강화 교과로서의 타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4)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1949년 교육기본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 2조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첫째, 행복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가? 둘째,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교과 영역의 행복역량교육 강화교과로서의 타당성은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과 생활만족

가. 행복에 대한 개념들과 행복연구 접근방법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하였다. ‘명량한 정서’, ‘건강’, ‘정신적 평온’, ‘약간의 재산’이 그것이다. 명량한 정서와 정신적 평온은 둘 모두 정신적 건강함의 범주에 들어가며 ‘약간의 재산’은 약간이면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행복을 진지하게 연구한지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삶의 질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 졌는데 사회학자들은 객관적 요인들 예를 들어 수입, 교육, 결혼, 건강, 주거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Wilson(1967)의 이론적 고찰 결론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성이나 지능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종교가 있으며 기혼이고, 낙천적이며,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격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고(Juon & Jung, 2009),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생존을 위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수입이 행복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Diener et al. 1999). 여러 연구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주관적 안녕감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학자마다 행복의 개념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중시하기도 하고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종합하면 행복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라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Veenhoven(1988; 1989,1991)은 행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행복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관점은 행복을 쾌락 추구와 동일 시 하여 삶의 만족이 게으름을 유발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복이 낙관주의를 유발하여 정확한인식과 비판을 둔화시키고 이기적 개인주의를 유발시켜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므로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결과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성장의 결과이며 동시에 성장과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게으르기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현실을 더 날카롭게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몰입하기보다 사회적인 개입을 하고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Lyubomirsky, King, & Diener, 2005)는 삶의 만족, 장기적인 긍정적 정서적, 그리고 실험연구에서 유발된 일시적 긍정적 정서까지도 모두 결혼, 우정, 수입, 직업수행, 건강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유발하는 인과적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Koo(2009)는 행복의 개념에 대해 행복은 그 자체로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행복은 다양한 심리적 자원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에서 Park과 Kim(2009)은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성취와 같은 변인들로 구성된 행복모형에서 가정의 월수입은 행복을 설명하는 결정적 변인이 아니라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보고하고 있다(Park, & Ki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개념을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주관적 안녕감’, 즉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 하면서 Diener와 Larson(1984)이 정의한 행복의 특징은 첫째,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구별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다. 둘째, 행복은 부정적요소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삶의 보다 긍정적 측면을 반영한다.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 판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 생활경험, 심리적 특성과 행복

행복에 대한 상향적 접근⁵⁾에 따르면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이러한 입장은 마음이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으며 경험에 의해 형성이 된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즉 행복이란 강한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는 삶이며(Diener, Sandvik, & Pavot, 1991)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경험은 일상적인 생활경험이다. Ryff(1997)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을 비교한 결과 학업, 직업,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같은 전형적인 경험들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예측했지만 자녀의 이혼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사건의 경험은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이중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는 성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였다. 실제로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가족과 결혼이었다. Argyle와 Martin(1991)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행복에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 도움이나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oo, & Kim, 2006).

행복에 대한 하향적 접근은 사건이나 환경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개인의 안정적인 경향성이 존재하며 행복은 이런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특성이론이다. 이러한 접근은 마음이 감각적 경험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조직한다고 보는 칸트 철학에 기초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행복수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성격, 자기 존중감, 통제감 같은 내적특성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관점이다. 성격특성 중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와, 신경증은 부정적 정서와 각각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Yoo, 1987; Yi, 1997). 성격 이외의 심리적 요소 중에는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와 Kim(2006)의 연구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심리특성은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 자기효능감, 집단주의 성향이었으며, 생활경험 중 사회적 관계형성과 경제적 여유는 건강보다 대학생의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행복이 전적으로 외생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심리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의 일상생활 경험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행복의 사회적 기능과 한국인의 행복수준

가. 행복의 사회적 기능과 고용, 직업만족,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행복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더 성공하며, 행복한 사람들을 더 쉽게 파트너를 만나고 행복한 사람들을 더 협조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Koo, Lee, & Suh(2009)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첫째,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기를 원하고, 둘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 정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친사회적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Bryant, 1983). 즉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의 긍정적 평가와 호감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5) 누가 행복하고 누가 행복하지 못했가에 대한 행복의 결정요인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즉 하향이론(top-down theory)과 상향이론(bottom-up theory)인데, 상향적 접근은 경험이 행복을 결정하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인 변인이나 외부사건 혹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반면에 하향적 접근은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안정적인 내적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Diener(Diener, Larson, 1984; Diener, Suh, 1999)등은 지난 30여 년간의 행복연구가 상향적 접근방법에서 하향적 접근으로 변화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외적환경과 내적요소를 분리해서 다루기보다 통합적 접근을 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왜 행복한가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6)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97).

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친사회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것이므로 행복은 사회적 자산형성의 단초가 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발달단계에서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특히 민감한 청소년기의 긍정적 심리와 행복감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고립과 또래거부는 스트레스, 고독감, 문제행동, 학업부진과 같은 여러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Jang, 2004)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 생활 성생활, 심리적 문제, 직업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직업만족은 행복의 한 영역이다. 다른 영역들로는 주거, 건강, 자연, 환경만족등과 같은 변수가 생활만족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중 직업만족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직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내재적 특징으로 개인이 관리할 기회, 자신의 기술이용가능성, 업무의 다양성, 협력 및 관리 감독, 개인적 접촉의 기회 등이며 외재적 특징으로는 급여(부수적 이익을 포함), 근로조건, 고용보장, 직장에서의 신체적 안전, 사회적 지위(사회적 계급이나 직업적 명예 등)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일이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가 또한 행복과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진다(Argyle, 1996). 사람들은 도전이나 성취를 원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노동을 원하지 않는다. 만족감을 주는 여가활동은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스포츠 활동이 있다. 이외에도 사교모임, 음악이나 연극동호회, 스포츠 팀의 구성원등과 같은 단체활동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나. 한국인의 행복수준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내린 결론은 연령이나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 상태와 같은 외적 인구학적 변인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단지 8-15%만 설명하는 반면, 성격관련 심리적 변인이 행복의 개인차를 50%이상 설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Diener, & Larson, 1984).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여전히 행복이 삶의 외적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서울 시민 1,024명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5%는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Lee, 2010). 이러한 결과는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이 문화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보기도 한다(Diener, & Suh, 1999). 여러 자원들(돈, 지능, 친한 친구, 가족의 지원 등)은 개인의 고유한 가치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때 행복과 더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다른 문화권에서 행복을 예측하는 개인적 자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 행복의 관계는 미국보다 한국이나 멕시코,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의 나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Diener, & McGavran, 2008). 결혼과 행복의 정적 관계는 미국보다 집단주의 국가에서 더 약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에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외적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Koo, & Suh, 2011). 이들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경우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했을 때 자신이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했으며 생활 속 행복경험의 40%이상은 이러한 내적 동기와 의미감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적 풍요 수준에 비해 행복하지 못한 국가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Diener et al. 2010).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구제선과 Suh(2011)는 그 이유를 한국인들이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생동안 상당량의 에너지를 학벌, 직업, 물질 취득을 위해 투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이면에는 학벌, 직업, 돈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신념(Lay belief)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학벌, 직업, 경제수준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한국사회에서 조차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수준은 그 사람의 외적, 객관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 보상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사회적 경험과 자율성, 의미 감들을 포기함으로써 행복

감을 느끼기 쉽지 않은 생활을 지속하므로 행복을 포함한 본능적 욕구와 소망을 희생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인들은 시간적 자원도 행복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사회적 상황이었지만 실제 조사에 있어서는 혼자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활동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활동은 적극적 여가 활동(운동, 산책, 공연관람 등) 및 먹기, 대화하기였으나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TV보거나 인터넷 하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나 일/공부, 생활유지 활동이 더 많아 행복을 유발하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Koo, & Suh, 2011)

객관적 환경과 경제수준이 행복과 절대적으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 욕구의 충족이 필수적이며, 돈은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그러나 물질적 풍요 그 자체만으로 국가 행복수준은 향상되지 않는다. 국가경제는 일정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Mayer, 2000; Mayer, & Diener, 1995)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 도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8),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조사한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59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53.08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교의 행복지수가 낮아 학년증가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http://youth.go.kr/mb/mb02100.asp>(2008.4.10.)).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보고서의 결과로 미루어 현재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Kim(2010)는 행복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고찰하면서 공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을 통해 경제생산보다 사람의 안녕을 더 강조하며 생산보다 소득과 소비를 그리고 GDP외에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건강, 교육, 정치참여, 사

회적 연결, 경제적 안녕 불평등의 수준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Lee(2009)는 교육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행복을 인정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안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3. 학교 교육과정에서 행복개념의 도입

가. 행복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타당성

행복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Noddings, 2003; 2007). 첫째,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행복 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행복 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며, 둘째, 자신의 행복 관에 비추어 개인적, 사회적 일을 평가하고 그것들이 자신과 타인들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그것을 바꾸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은 개인의 외적인 상황보다는 심리적 성격 변인이 50%이상을 행복을 결정짓는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행복이 과연 의도적 행위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Martin(2005)은 행복의 차이에 유전적 요인과 양육의 결합이 50%, 삶의 환경이 10%, 그리고 의도적 활동(사회적 교제, 의미 있는 일, 삶에 대한 성찰, 운동 등)이 40%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2009)는 교육을 통하여 지향되어야 하는 행복과 행복역량은 Aristoteles가 제시하는 에우다모니아(eudamonia)의 개념에서 착안할 수 있다면서 최고선을 실현하는 행복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복역량개발을 위해 주어진 삶의 조건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강점과 탁월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확장할 수 있어야 하고, 확장된 강점과 탁월성을 활용하여 사적, 공적 영역(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바람직한 의미와 가치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와 같은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위와 같은 행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재검토 되어야 하는데, 학교교육과정에서 행복역량 추구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에 대해 Noddings(2003; 2007)는 행복을 실제 삶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개인 생활에서는 1) 가정 만들기, 2)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 3) 자녀양육, 4) 인격과 영성의 성장, 그리고 5) 대인관계의 발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6) 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7)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들고 있다.

한편 Hong(2002)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개발 패러다임 연구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와 질 관리를 위해서는 목적이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총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에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등)이 정해지고 학교 급별 교육목표, 교과편제와 시간 및 단위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등을 폭넓게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등은 많은 사람들의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방향이나 행복추구 및 행복역량강화와 같은 철학적 개념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이 60년 전 홍익인간의 개념을 도입했던 시점에서부터 진화하여 1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경제선진국으로 도입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문화를 통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발전된 교육목적을 통해 한국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1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특징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상은 결국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성취 등을 통해 자신 스스로 주관적인 행복을 느끼는 인간이 됨으로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서적 지원, 자기 효능감, 직업성취 등이 행복역량강화

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판단해 볼 때 앞에서 제시한 Noddings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이 행복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므로 교육영역에서 볼 때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을 하는 실천교과의 교육을 통해 행복역량은 강화 될 수 있다고 보며 실천교과의 대표적 교과인 기술·가정교과가 행복역량 교육도입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공통필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⁷⁾

나. 중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교과 영역에 행복역량 교육도입의 타당성

Park(2006)은 교과의 교육내용은 사회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그 교과가 지속가능하다고 하였으며, Lee(2009)가 주장한 교육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행복을 인정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대적 가정과 교육의 목표와 특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주로 체험을 통해 가정생활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정, 산업생활(직업)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하는 목적 하에 개성발달, 인간관계 회복, 창의성발휘,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Noddings(2003; 2007)가 주장하는 행복을 실제 삶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의 7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즉 2011년 중학

7) Hong(2002)는 한 사회에서 모든 사회 성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같이 공유해야 사회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인가, 사회 공동의 기반을 넓혀주는 것인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필요한 것인가, 모든 직업세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 행동양식인가, 특정국가에서 국민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측면인가, 한 국가 사회의 사회적 상식인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세계, 지역, 국가 사회의 구조변화인가, 세계시장과 세계의 장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나 행동양식인가 등이 어떤 교육내용과 활동을 공통필수 교육과정으로 수용, 채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Curriculum(1946–2011)

period	purposes	characteristics
1st (1954-1963)	-Knowledge, technology and attitude for family and Social Development -Exert force in the field of their ability	-Practical knowledge for life -Technology for vocational education focusing on voluntarism for nation and region
2nd (1963-1973)	-Basic knowledge and skills for Industrial society & Family -Profession through national service to the community	-Apply to human life -Service to the nation and society through job
3rd (1973-1981)	-Rational living life -Ability to choose the right job aptitud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rough professional life	-Real life, food, clothing, shelter, child care, fixed to the management -Emphasis on the role of women in industrial society
4th (1981-1987)	-Ability for real life -Career Exploring -Take seriously the job attitudes	-Understand myself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th -Regard to the importance of resource utilization.
5th (1987-1992)	-Creatively use the basic knowledge about home life -The right career choice aptitude	-Importance of Consumer Affairs
6th (1992-1997)	-Understanding of family life through learning their own Experience of family life -Skills and attitudes necessary to family life	-The importance of family life -Emphasize th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member -Highlighting the role that cooperative family life independently
7th (1999-2008)	-Learn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understand and adapt to the industrial lif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ttitude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future changes in society	-Emphasizes on National common basic mandatory education -Creative work plan and practice emphasize the ability to design their future life reasonably
open period (-2011)	-Hongik human personality fulfillment of all citizens -Independent living skills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life -To realize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Career on a foundation of holistic growth,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ioneering -Creativity -To lead a quality of life with cultural literacy and pluralistic values -As citizens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in the spirit of sharing, caring and contributing to community development

교 실과(가정·기술)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인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자기관리, 가족의 이해, 녹색가정 생활의 실천, 진로와 생애 6개 영역과 이 영역별 내용성취 기준에서 행복역량강화와 관련된 기준을 비교해 보면 Nodding(2003; 2007)의 행복 찾는 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7 가지 영역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기술·가정 그리고 고등학교 가정 과학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영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라는 성격과 목표를 이미 고시하고 있다(가정 과학 교육 과정, 2011).

III. 연구방법

1. 전문가 패널을 통한 심층면접

전문가 패널 인터뷰는 전문가 집단 조사인 델파이조사기법과 심층면접 기법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의 조사기법으로 볼 수 있다. 델파이 조사의 경우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계량적이며 객관의 원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의해 논리적으로 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의 반복과 통제, 그리고 통계적 집단 반응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Table 2. 2011 Content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era) Curriculum /Nodding's Activating Era for Experience of Happiness in Everyday life

field	Achievement criteria for strengthen its capabilities of feeling Happiness	Nodding's Activating Era for Experience of Happiness in Everyday life
<p><Understanding Adolescence> 1) Adolescent development 2) Gender and Companionship in adolescence</p>	<p>-Adolescen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of a positive self-identit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 development, friendship</p>	<p>4) Growth of personality and spirituality 5)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p>
<p>< life of Adolescence> 1) Creating a healthy diet and eating 2) Clothing and self-expression 3)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p>	<p>-the relationship of healthy life and happiness- -Positive self-identity through dress -The foundations of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sidential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cology</p>	<p>2) Interest for space life takes place and natural life</p>
<p><Self-management of Adolescence> 1) time and stress management for Adolescence 2) adolescent consumer 3) adolescent welfare services</p>	<p>-Youth of the time, relieve stres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rough positive emotions -The formation of the culture of happy consumption -Improve the self-efficacy through the use of adolescent welfare services</p>	<p>4) Growth of personality and spirituality 5)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p>
<p><Understanding of the family> 1) Changing families and healthy families 2) Family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p>	<p>-Understanding of the joy and happiness of the child-rearing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rough -To recognize happiness through an emphasis on healthy relationships</p>	<p>1) Home Creating 3) Parenting</p>
<p><Practice of eco friendly family life> 1) Creating an eco-friendly diet and food 2) Eco-friendly clothing life and clothing reform 3) Decorate the main living and sustainable living space</p>	<p>-Expression, through the practice of the main living day-to-day, to experience happiness -Experience the pleasure of eating together with friends, family care through audit of green health care diet and making food, sharing practice -Clothing and Textiles through the creation of a living-related props, to experience that euphoria gifts to acquaintances around</p>	<p>1) Home Creating 2) Interest for space life takes place and natural life 5)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p>
<p><Career and life planning> 1) Career exploration and life planning 2) Work and life balance, Family life and welfare services</p>	<p>-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Eliminate prejudice against the profession in the process of finding a job that fits their aptitudes -Recognizing that life itself is a learning, design life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p>	<p>6) Preparing for a job 7)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nd society</p>

요구한다(Lee, 2006). 본 연구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행복역량이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지? 기술·가정교과가 행복역량 강화교과로서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심층면접법의 장점을 취하여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선택은 교육과정개발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정과 교수 및 교사, 기술과 교수 그리고 행복연구의

전문성을 가진 심리학전공교수, 교육과정전공의 교육학 분야 교수 등 관련 전분 분야의 교사 및 교수를 전문가 패널로 선정한 후 기술·가정교과의 교육과정내용(table 1, table 2의 내용포함)의 인쇄물을 미리 전달하고 차후에 면접자에게 각각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언하도록 하였으며 발언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면접 후 부족한 부분은 전화면접으로 보완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 가정과 교수와 교사, 그리고 교육학, 심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0일 - 7월 10일 사이에 패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IV. 결과 및 해석

1. 교육을 통한 행복역량의 강화

가. 교육보다는 환경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

행복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글쎄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애들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그렇게 따지면 요즘 학생들 모두 행복역량이 높다고 보이는데…….” B 교사의 말이다.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학생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학부형들이 원하는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아직도 학생들에게 바라죠.” C 교사의 증언이다. “행복을 느끼는 행복 역량이란 게 사실 개인이 느끼는 거잖

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더 필요한 것이죠. 초기의 인성형성이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태생적인 것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환경 변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즘 학생들의 학교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할 때 생활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동학 전공 A 교수의 말이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의 핵심가치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10년 서울 시민 1,014명을 조사한 행복의 조건에서 40.5%가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Lee, 2010)고 하였고, 2008년의 껌집조사에서도 진학, 학업성적, 고가의 물질 취득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인들의 핵심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에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행복과 관련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외적,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상태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설명력은 오직 8-15%임)보다는 성격관련 변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 행복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요” 심리학전공 E 교수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행복개념이 도입된 교과는 도덕입니다. 도덕 교과에는 행복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교육이 최근에 도입되어 있는데 도덕교과에서 행복에 대한 가치교육을 말로만 한다고 행복역량이 강화될지는 모르겠네요.” I 교사의 의견이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r

field	age		sex	major	job	marriage statu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related majors	44	A	Female	Children Education	professor	married
	39	B	Female	home training	teacher	single
	48	C	male	technical training	teacher	married
	55	D	Female	home training	professor	married
Education, psychology	54	E	male	psychology	professor	married
	48	F	Female	psychology	instructor	single
	58	G	Female	pedagogy	professor	married
	52	H	Female	pedagogy	instructor	married
	48	I	male	moral education	teacher	married

나. 체험을 통한 가치교육의 변화로 교육을 통해 행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교육을 통해 행복역량을 키운다는 건 결국 교육을 통해 핵심가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인데 문화적, 사회적으로 핵심가치가 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중의 하나로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학과 G교수의 말이다. “한국의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외적 상황요인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Koo, & Suh(2011)의 연구에서는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했으며 생활 속 행복 경험의 40% 이상은 이러한 내적 동기와 의미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도 학벌이나 경제력 같은 외적 요소가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도 이제는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F 박사의 설명이다. F 박사는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특별한 가치의식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한국은 경제적 풍요수준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은 일생동안 상당량의 에너지를 학벌, 직업, 물질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학벌, 직업, 돈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일반인들의 신념 때문이죠.” 이러한 설명은(Diener et al. 2010) Koo, & Suh (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성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직업의 성취와 함께 자녀의 성공이 따라야 가족이라는 집단의 성취 또는 관계에서의 성취라고 보고 이러한 성취가 이뤄져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자식농사를 잘못하면 개인적인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텐데.” G교수의 의견이다. “행복은 자신의 관점에서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확인된다고 봅니다.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전체적 효과를 볼 때 소득의 효과보다 4-5배 높으며 자기효능감과 직업성취가 소득보다 2배 이상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자녀성공이 소득보다 1.5배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런 결과의 기본가정은 어느 정도의 기본경제력이 전제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학전공의 F교수의 증언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자원 연구에서 시간적 자원의 사용을 볼 때 사람들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은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사회적 상황이며 적극적 여가활동(운동, 산책, 공연 관람 등)이나 먹기, 대화하기였으나 한국인들의 시간사용을 보면 소극적 여가활동(TV보기, 인터넷, 컴퓨터하기)이나 일/공부하기, 생활유지 활동에 더 많이 시간을 쓰고 있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자유로움이나 자기 존중감이 행복과 더 높은 관련을 보이지만 우리의 사회 분위기는 행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이 아직 높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실천학습을 통해 이러한 가치관을 느끼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론보다는 체험을 통해 느끼고 감지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이나 실천학습 등을 위해서는 교육의 정교성이 도입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이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H 강사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러한 체험의 중요성은 Koo과 Kim(2006)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그들의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적인 생활경험이 행복에 상관성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Park와 Kim(2009)의 한국 청소년의 행복연구에서도 행복에 대한 자기 효능감⁸⁾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복연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도 보

8) Bandura(1997)가 제안한 자기 효능감이란 인간의 효능적인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변인이 인간의 행복이나 생활만족도를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적인 기술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인 고통도 감소하고 병의 진행도 늦추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 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고통이 적음을 보여주었다 (Holman & Lorig,1992; Lorig, 1990)

고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우울 증상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확인 되었다(Park et al. 2009). 이는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우리속담에서도 있듯이 행복하기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하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 역량이란 게 따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핵심가치가 변화하고 이러한 가치변화에 의해 물질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보다 생활의 질을 추구하며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일부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통해 또한 체험학습이나 실천학습 등을 통해 가치교육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 가속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행복역량교육 강화교과로서의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교과 영역의 타당성

가. 교육과정 내에 행복역량 강화 교육의 탐색 가능성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는 어떤 교과에서 무엇을 가르치면 행복역량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가 높으면 행복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한국학생의 행복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중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좌우 되죠. 한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위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에서 따스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해와 배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성취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그 성취를 함께 나누고 또한 성취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마음으로 아껴주는 과정 즉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교류할 때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 쪽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교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학교 환경 전체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 교수의 근원적 처방에 대한 발언이다. “요즘 학생들은 외동이기도 많고 형제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세대이기 때문에 online에서의 소통은 익숙해 있지만 실제의 인간관계가 서툰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 소통의 능력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 가정, 윤리 과목 등이 있는데 교과 특성상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실험 실습 등을 통해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교수 학습방법을 택하고 있어 행복학습에 가장 적절한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A교수의 말이다.

나. 행복역량교육으로서의 가정교과 내용의 타당성

“행복역량교육으로 가정교과의 내용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과정내용이 실천적 생활역량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조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학습, 생활경험의 정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라는 생각이구요, 수업시간에 실습교육 등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거나 완성시킬 때 느끼는 자기효능감도 교육과정에서 잘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B 교사는 강한 어조로 강조하였다. “기술 수업에서도 모형물의 완성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죠.” 이는 앞에서 제시한 Nodding(2003; 2007)의 행복 찾는 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7 가지 영역의 제시에서도 보였듯이 가정교과가 행복역량강화에 적절한 교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관계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정서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는 교과가 가정교과나 윤리교과 등인데 이러한 교과에서 행복역량 강화 수업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특히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으므로 기술·가정 교과에서 행복역량 강화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그런데 현재 기술·가정, 윤리 등과 같은 교과목은 입시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과목의 보충용으로 쓰기도 하거나 학생 선택권이 없이 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선택으로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점점 더 행복관련 교과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A교수의 안타까움을 내포한 발언이었다. 심층면접자 대부분이 어떤 교과이든 간에 행복역량을 높여주는 학습내용을 교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일치한 견해를 보이는 반면 어떤 교과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생활실천의 과정이나 실천의 장을 통해 행복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어 생활실천 교과를 표방하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가 행복역량을 키우는 교과로서의 적합성에 가장 근접한 교과로 판단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7년째 자살률 1위, 여성우울증 1위, 남성돌연사 1위, 흡연율 1위, 음주율 1위 등,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는데도 삶의 질은 높지 않고 유엔의 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서 5점 후반대로 150개국 중 56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1년 새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이바지하도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둘째, 기초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넷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 행복의 전제조건은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건강, 의식주의 기본생계를 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위사람들로 부터의 파스한 정서적 지원에 의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행복은 결코 돈이나 태생적인 성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하였다.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가설은 생활경험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행복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가정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요소들은 행복을 찾는 경험을 위한 영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정교과는 행복역량을 배우기 위해 가장 적절한 교과이며 한국인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배우도록 하는 필수 교과일 수밖에 없는 교과이다. 가정교과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개발경제 시기에는 합리적 생활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 생활의 질의 향상시키는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교과였다면 경제성장이 성숙된 시점에서는 행복역량을 추구하는 주관적 생활의 질을 높이는 교과로서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정교과 교사는 스스로 행복 을 배우고 자기 효능 감을 높이는데 필요한 감사, 헌신, 신뢰, 희생, 믿음, 이해, 격려 등의 생성 및 확대를 위한 마음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 친구들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기 효능 감을 높일 수 있고 정서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고 곧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ng, Y. J. (2009).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Happiness and Ethics. *Ethics Research*, 72, 163-189.

- Cho, S. Y. et al. (2008). Are Korean Children Happy? *Proceedings of the 2008 Spring Korean Children's Society Conference*.(pp. 69-81).
- Hong, H. J. (2002). Paradigm Shift in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Quality Control(II).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2), 197-226.
- Koo, J. S., & Kim, U. C. (2006).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Trait, Life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4), 1-18.
- Koo, J. S., & Suh E. K. (2011).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143-166.
- Koo, J. S., Lee, A. R., & Suh, E. K. (2009) 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Are happy people popula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1), 29-47.
- Lee, G. B. (2009). Happiness and Educational Culture in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20(1), 365-392.
- Lee, J. H. (2010). *How happy being 2ed Code the secret of happiness*. (TV Documentary), Seoul: KBS TV.
-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THE SCHOOL CURRICULUM OF THE REPUBLIC OF KOREA*.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41 (Feb. 26, 2008)
-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s.
- Yi, I. H. (1997). Personality, uplifts and Hassles, and Subjective Well-bing. *An Application to NEO personality Model*, 1(1), 9-219.
- Argyle, M. (1996).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London: Penguin.
- Argyle, M., & Martin, M.(1991). *The psychological causes of happiness*. Oxford: Pergamon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ien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runo, S., frey, & Stutzer A. (2002). *Economics, and Happiness speak*. Kim M. J . Jung, N. Y. translated, Seoul: Ye-Moon.
- Bryant, B. K. (1983). Context of Success: Affective aroused generosit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553-562.
- Diener, et. al.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Proceedings of Koran Psychology Association yearly Conference*. (pp.1-23).
- Diener et. a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 Diener, E., & Seligman, M. (2004). Beyond Money, Toward and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91, 1-31.
- Diener, E & Suh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NY: Russel Sage Foundation.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Larsen, R. J.(1984). Temporal stability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71-883.
- Diener, M. L., & Mc Gavran, M. B. D. (2008). *What makes people happy?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on family relationship and well-being*.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ewYork: Guilford Press.
- Diener, Sandvik, E., & Pavot, W. (1991).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xford: Pergamon Press.
- Easterlin, &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ewYork: Academic Press.
- Holman, H., & Lorig, K. (1992). *Perceived Self-efficacy in self-management of chronic disease*. Washington, D. C.: Hemisphere.
- Jeon, K. S., & Jung, T. Y.(2009). Happiness Determinants for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1), 133-153.

- Kim, E. J. (2006). Exploratory study of Cultural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8(2), 1-27.
- Lorig, K. (1990). *Self-efficacy: Its contributions to the four year beneficial outcome of the arthritics self-management course*. Chicago: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 of frequent positive affect :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Martin, P. (2005). *Making happy people*. London: Fourth Edition.
- Mayer,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Mayer,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oddings, N. (2007). *Happiness and Education*. Lee J. H. translated ed. Seoul. Hak yi Dang.
- Notified the Ministry of Education (1997).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Commentary*. Seoul: Daehan textbook.
- Park, M. H. (2006). A Study on the Content Innov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a Reflected in Social Change & Nee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8(1), 77-93.
- Park, Y. S., Tsuda, A., Kim U. C., Han, K. H. Kim, E. Y. & Horiuchi, S. (2009),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al social support, resiliency of efficacy and stress management behavior. *Korea Journal Psychological*, 15(1), 1-28.
- Park, Y.S., & Kim, U. C. (2009).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3), 399-429.
- Park, Y. S., & Kim, U. C. (2009).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1), 95-132.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yff, C.D.(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193-206.
- Shin, M. H., & Koo, J.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Creativity : Happy Persons Are More Creativ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3), 37-51.
- Suh, E. M. & Koo, J. (2008). *Comparing subjective well-being across and nations: The 'what' and 'why' questions*. N.Y.: The Guilford Press.
-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1)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Seoul: Daehan textbook.
- Veenhoven, R.(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Veenhoven, R. (1989). *How Harmful is Happiness? Consequences of Enjoying Life or Not?* Rotterdam,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Rotterdam.
- Veenh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Oxford: Pergamon Press.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 Yoo, H. J. (1987),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 *Reference to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6(1), 1-4.
-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8). <http://youth.go.kr/mb/mb02100.asp>

<국문요약>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는데도 삶의 질은 높지 않고 유엔의 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서 5.8점으로 150개 중 56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행복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가? 둘째,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교과 영역의 행복역량교육 강화교과로서의 타당성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이론적 연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개인당 GNP 2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수준에 와 있는 국가로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행복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펼쳐야 하며 행복은 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행복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생활경험을 통해 행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교과 영역이 행복역량 강화를 위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18일